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1)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연재목차)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고대 중국인의 자연을 향한 끝없는 탐색은 원림¹⁾이라고 하는 건축유형을 탄생시켰다. 그것은 우선 장소의 선택과 개발방식에 따라 인공산수원(人工山水園)과 자연산수원(自然山水園)으로 대별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방원림(北方園林), 장강(長江) 하류를 중심으로 한 강남원림(江南園林), 주강(珠江)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원림(嶺南園林)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사용자의 주체에 따라 황가원림(皇家園林)(사진1), 사가원림(私家園林)(사진2), 사사원림(寺刹園林)(사진3)²⁾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원림의 형태에 따라서 기하학적인 원림, 자연풍경식 원림, 그리고 이 둘의 형태가 혼재된 혼합식 원림으로 분리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고전 원림건축은 다른 어떤 건축유형에 비하여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철학적 사고와 윤리관, 우주관, 자연관, 심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며, 문헌의 기록으로 보면 기원전 11세기경에 처음으로 출현하여 20세기의 초반까지 무려 3천여년에 걸쳐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고전 원림건축이 추구한 것은 자연에 대한 현세에서의 재현,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능가하

1) 원림이란 단어는 서진(西晉) 시기의 시문에서 처음으로 보이며 당대(唐代)의 시인들 역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시대부, 문인 등과 같은 개인에 의해 조성된택원(宅園)을 지칭하는 의미로서의 원림은 명말의 유명한 조원가인 계성(計成)의 저서 '원야(園冶)',라는 책이 나오고 난 이후의 일이다(『중국조원사』, 장가익, 명문출판사, 1991년, 11쪽).

2) 학자에 따라서는 사사원림을 사관원림(寺觀園林) 또는 사묘원림(寺廟園林)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는 초자연적인 인위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있었으며 그 조영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에 근원을 두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연을 초월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견지

둘째, 건축물의 다양한 형상을 통해 표출되는 건축미를 적극적인 조경의 수단으로 전환

셋째, 풍부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기능의 활동을 만족시키는 공간의 조합방식

넷째, 시·서·화(詩·書·畫)의 예술적 의미가 농후한 입체적인 시정화(詩情畫意)의 표현

다섯째, 마음으로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은밀한 방식의 우의와 상징적 기법을 이용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어느 한 시기에 모두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며 장기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그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³⁾

1.1 원림건축의 생성기-선진, 양한(B.C.11세기-A.D.220년)

이 시기는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탄생되어 점차 성장해 가는 맹아기이자 유년기로서 노예사회 말기와 봉건사회 초기에 해당하는 하, 은, 주, 진, 한의 5개 왕조에 걸친 1천 2백 여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당시 사회의 주요한 변화 상황으로는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주고 지역의 귀족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던 채읍제(采畝制)가 중앙집권적인 군현제(郡縣制)로 대체되고 유학이 점차 정통의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지주소농의 경제를 기초로 하는 봉건 대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황가의 원림은 규모가 광대하고 기개 있게 만들어져 이 시기 원림조영활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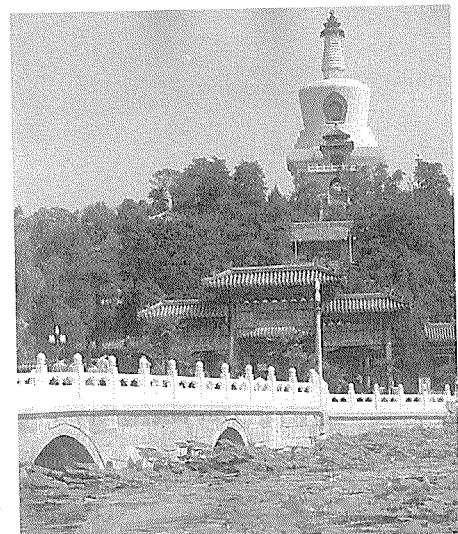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원림의 기원은 과일나무와 채소 등을 심는 원(園)과 포(圃), 금수를 기르던 원(苑)과 유(囿)에서 비롯되었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이러한 글자에 이미

3) 일반적으로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시대구분은 왕조의 변천을 따르고 있으나 여기서는 청화대학 건축학원 周維權 교수의 저서인 『중국고전원림사』(청화대학출판사, 1993년)에 서술된 견해를 취했다.

원림의 생산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先秦), 양한(兩漢) 시기의 원림건축은 아직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유형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조영활동의 주류는 황가원림에 있었다. 사가원림은 문헌의 기록에는 보이고 있지만 수량이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황가원림의 규모와 내용을 모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유형의 원림건축 사이에는 유형상의 명확한 차이가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원림건축의 기능도 초기의 수렵, 통신(通神), 구선(求仙), 생산 위주에서 점차 후대에 보이는 휴식과 오락, 감상(觀賞)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은 자연환경 속에 소략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3대 요소인 산과, 물, 식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시적인 산천숭배, 제왕의 봉선활동(封禪活動), 신선사상 등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대자연을 여전한 신비로운 존재로 남겨 두고 있었으며 완전히 자각된 심미의식을 구축하지 못한 채 객관적으로 관조하는데 머물렀다. 따라서 원림의 총체적인 경영이 일정한 계획하에 설계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으며 예술적인 창작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1.2 원림건축의 전환기-위, 진, 남북조(A.D.200년-A.D.5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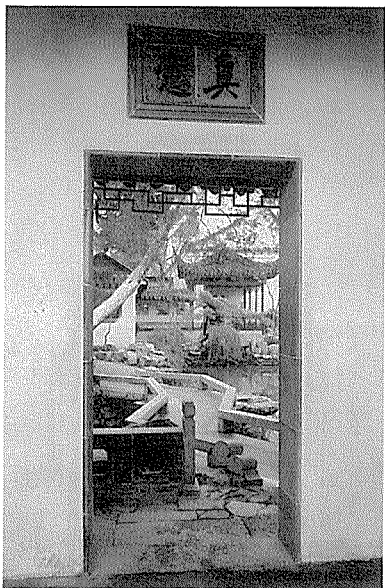
위진 남북조 시기는 중국 역사상 일대 혼란기였으며 사상계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사상의 해방은 예술 영역의 개혁을 촉진 시켰으며 원림건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원활동은 점차 민간으로 보급되어고 예술적인 창작의 경지로 승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사진1) 북경의 북해공원 영안사 입구와 박탑의 전경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전시대의 업적을 계승하여 후대를 계발(承先啓後)시킨 하나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369년에 걸친 위, 진, 남북조 시기의 혼란기에는 자연미를 핵심으로 하는 미학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자연을 재현하고 자연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자연산수의 모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적절히 개괄하고 추상화하며 전형화함으로써 자연에 근원을 두되 자연을 능가하는 방향으로 조원의 방향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종전의 원림이 가지고 있던 수렵과 통신(通神), 구선(求仙) 등의 기능은 점차 소멸되고 상징적으로만 남게 되었으며 유람과 관상활동(觀賞活動)이 유일한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람과 관상의 주요내용은 경관의미를 추구하고 향유하는 것이었지만 아직은 단순하고 조잡한 상태였다. 또한 사가원림이 하나의 독립적인 원림건축의 유형으로 등장하여 이 시대 조원활동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였다. 사가원림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부와 신비로움을 경쟁하는 귀족과 관료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은일을 표현하고 자연의 정서를 추구하는 문인과 명사들의 경향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이후에 문인원림의 기원이 되었다. 황가원림에도 변화가 생겨 총체적인 도성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황가원림은 도시 중심부의 유기적인 조성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사원림의 출현은 원림건축 영역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풍경이 수려한 지역의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때 이후부터 중국 고전 원림건축은 황가, 사가, 사사원림이라고 하는 3가지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건축물도



(사진2) 소주의 망사원. 소박한 벽면위에 간결한 문. 시의가 잘 드러나 있다.

조원의 요소로 작용하여 다른 자연환경의 요소와 더불어 긴밀한 조화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원림건축의 계획역시 종전의 초보적인 조잡한 단계에서 비교적 정제되고 정교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보다 자각적인 원림건축의 설계경영은 예술창작의 단계로 향상되었다.

그 결과 위, 진, 남북조 시기에는 앞서 이 글의 서두 부분에서 언급한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5가지 특징 가운데 '자연에 근원을 두되 자연을 초월하고', '건축미와 자연미가 서로 융화' 되는 2가지 특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뒤를 이어 등장하는 수, 당의 원림건축이 전성기로 진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3 원림건축의 전성기-수, 당(A.D.589년-A.D.960년)

수, 당 시기의 원림건축은 전 시대의 풍경식 원림예술의 기초 위에서 봉건 사회의 경제와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전성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황가원림의 경우 황실의 권위와 존엄성이 완전히 기틀을 잡아 원림건축의 규모, 전체적인 배치, 세부적인 설계에 이같은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왔다. 그것은 궁궐계획의 완비, 황제의 다양한 활동, 원림 내의 거주 등과 직접 관계가 있다. 아울러 황권을 핵심으로 하는 집권정치의 공고함, 봉건 경제와 문화의 번영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 결과 황가원림은 전 시대에 비하여 다른 원림건축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당시 시대적인 의미를 내포한 원림건축으로는 서원(西苑), 화청궁(華淸宮), 구성궁(九成宮) 등을 들 수 있다.

사가원림의 경우는 그 예술성이 전대에 비하여 더욱 승화되어 원림경물(園林景物)의 전형적인 성격 및 세부의 치밀한 처리 수법에 유념하였다. 시문(詩文)과 회화(繪畫)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유(王維)이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생동감 있게 산과 들, 전원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였으며 그림에서도 동일한 기질로 시의 의미를 갖추고 있었다. 중당(中唐) 이후, 왕유, 백거이, 두보 등의 문인들은 모두 원림건축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망천집(輞川集)』에서 망천별업을 묘사한 내용으로 보면 시와 그림의 정취가 원림의 산수경물에 부여되었으며 그림이 경관이 되고 시가 원림건축에 이입되는 수법은 이미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결국 산수경물을 통하여 유람자의 연상활동을 유발시켰고 의경(意境)⁴⁾의 형상화 역시 몽롱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또한 유가의 현실주의적 정취, 도가의 과욕과 신흥

불가의 선종이 추구한 자성에 의한 해탈 등이 3가지가 지식인의 조원사상에 융합되어 독특한 원림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사가원림의 창작과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송대와 명대의 문인원림을 이루게 되는 계몽적인 역할을 했다.

사사원림의 보급은 종교의 속세화로 나타난 결과로서 종교와 종교건축의 속세화를 촉진하였다. 도시에 자리잡은 이러한 건축유형은 대중들의 사교중심으로써 그 역할을 하였으며 내부에 조성된 원림 역시 공공적인 성격을 띠었다. 또한 교외의 산간지역에 조성된 사사원림은 종교활동의 장소를 풍경장식의 수단으로 전환시켜 참배객과 여행객을 끌어들이므로 원시적인 여행지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생태환경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조를 하였다. 종교건축과 풍경건축은 더욱 차원 높은 수준에서 결합하여 산악명승지가 보편적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는 산수화와 시문이 원림건축과 결합됨으로써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시정화의 특징을 이루어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직 의경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정교한 예술경영에 있어서 휘황찬란한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같은 전성기의 발전 추세는 송대까지 지속되어 결국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였다.

1.4 원림건축의 성숙기 전가-송, 원, 명, 청초(A.D.960년-A.D.1736년)

북송에서부터 청대 옹정년간까지의 7백여 년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당대(唐代)의 전성기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발전을 함으로써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발전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가, 황가, 사사 등 원림건축의 3대 유형이 비로서 풍경식 원림건축의 특징을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앞서 언급했던 5가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특징 또한 전면적이고 명확히 조원활동에 나타났다. 그밖에 문인원림이 당대의 계몽기를 거쳐 남, 북송대에 흥기하였으며 명대와 청대 초기에 이르러 크게 성행했다. 원림건축의 한 품격으로서 그것은 원림건축의 특징을 확장시키는 한편

4)의경은 중국 예술창작과 감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미학의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주관적 이념, 감정이고 경은 객관적 생활과景物이다. 의경은 예술창작에서 서로 결합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창작자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인 생활과景物 속에 용해시켜 감상의 유사한 감정의 격동과 이념의 연상을 일으키게 한다.

발전의 정도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원림의 창작방법도 점차 사의(寫意)를 향해 전환되었다. 북송대에는 당대의 사실(寫實)과 사의(寫意)가 서로 결합된 전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간악기(艮岳記)』나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의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이다. 남송의 문인화가 화단에 출현하여 사람들의 심미관을 사의의 화풍으로 유도하였다. 이러한 심미관도 원림건축의 창작, 특히나 문인원림의 창작에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게다가 '소중견대(小中見大)', '수미개자(須彌芥子)', '호중천지(壺中天地)' 등과 같은 미학관념의 영향으로 사의원림의 흥기에 일정한 촉진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원, 명의 문인화가 극성을 이루면서 몇 개의 화단 세력이 원림건축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의적 창작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정교한 돌쌓기 기술(疊石)은 원림건축 내에 보편적으로 가산을 만들게 하였으며 사의원림의 발전에 유리한 기술적 조건이 되었다.

황가원림은 우선 사가원림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점차 인간의 조원기술을 흡수하여 황실의 기백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경향은 명대 이후 권력이 집중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날로 발전하면서 성숙기 후기에 이르러 황가원림 경영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문인원림은 사가원림의 예술적 최고봉으로서 강남원림을 대표로 한다. 특히 송대와 명대이후 봉건사회 내부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면서 상공업이 번영하고 시민문화가 발흥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의 원림건축도 따라서 융성하였다. 사회적 역량이 사가원림에 침투하여 문인원림의 다양한 형식이 출현하였다. 인간의 조원활동도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으며 각지역의 인문조건과 자연조건이 서로 결합하여 지방의 품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향토원림이 탄생되었다. 불교에서 선종의 발달은 사찰의 7당가람제를 확립하고 불교건축이 완전히 중국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선종과 유학의 결합은 승도(僧道)의 문인화(文人化) 경향을 낳아 사사원림의 세속화를 촉진하는 한편 문인원림의 요소 가운데 절대 다수의 부분이 사찰의 조원활동에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사원림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공공적인 원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명말 청대 초,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여 민간 조원활동이 번성했던 강남지역에는 걸출한 조원가들이 출현하였다. 일부는 문인계층이었거 기산을 만드는 전문적

인 장인도 등장하였다. 문인 가운데는 전문적이 조원가도 있었다. 그리고 풍부한 조원경험이 부단히 누적되어 이론적인 저술도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성이 쓴 『원야(園冶)』라고 하는 책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례없던 일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조원가가 출현하고 전문적인 조원장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도 개인적인 풍격의 원림창작이 발전하는데 일조를 했다. 특히 가산을 만드는 기술이 두드러졌다.

한편, 송대에는 불교의 선종이 일본에 전래되어 중국의 조원예술이 당대 이후 또다시 일본에 영향을 주어 일본선종원림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명말 청초에는 다수의 사신과 강남의 문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감으로써 일본의 막부시대에 성행한 회유식(回遊式) 정원에 강남 지역 사가원림의 풍격이 반영되었다.

1.5 원림건축의 성숙기 후기-청중엽, 말기(A.D.1736년-A.D.1911년)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발전사로 볼 때 건륭연간부터 청대말기까지의 2백여년간은 근, 현대로 전환되는 급변하는 시기였으며 일종의 종결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원림건축은 전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휘황찬란한 성과를 이루었다. 동시에 봉건문화가 무르익어 말기의 쇠퇴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존하는 원림건축의 대부분은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황가원림은 우여곡절을 거쳐 건륭, 가경 양대에 이르러 규모나 예술적 조예로 볼 때 역대 최고봉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대형원림의 마스터 플랜과 설계는 참신한 요소들이 다수 나타났으며 강남의 민간에서 조영된 조원원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남북지역의 원림풍격이 크게 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840년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한 근대화 시기 이후에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민간의 사가원림은 지속적으로 전 시대의 기술을 이어받아 강남, 북방, 영남 등 세지역의 지방풍격이 서로 정립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소수민족 가운데는 장족의 원림건축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각 지역의 인문, 자연적인 조건은 향토색이 농후한 특색있는 원림건축을 만들어냈다. 한족 지역과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문인원림의 풍격이 성행하기는 하였으나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 더 이상 송, 명시기와 같은 생명력 있는 모습을 재현하지는 못했다.

원림건축의 성격도 다소간의 변화가 생겼다. 궁중과 민간의 원림 내에서의 활동은 원림건축이 마음으로 감상하고 눈으로 희열을 느끼며 인격수양 위주의 유람과 휴식의 장소에서 다양한 기능의 활동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봉건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과도한 형식과 기교의 추구는 원림건축내에 건축물의 밀도를 크게 높였으며 산석(山石)의 사용량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원림내에서 건축물의 조경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가산의 기법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원림건축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약화시켜 형식주의에 흐르게 하였으며 풍경식 원림의 본 뜻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론적인 탐색도 정체상태에 빠져 전 시대와 같은 이론저술은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 계통적으로 총괄하여 과학적인 이론으로 승화하지 못했으며 문인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조원활동의 창조성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 내외의 상황변화와 더불어 서양 원림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건륭연간에는 원명원 안에 서양식의 건축물과 분수등을 갖춘 서양황궁의 정원양식이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대외무역이 이루어지던 상업도시에는 사가원림 주인의 취향과 호기심에 따라 이국적인 풍격의 원림요소가 대량으로 침투해 들어왔으며 동남연해 지역의 도시에서는 다수의 화교들이 낮은 이국에서 돈을 번 뒤 고향으로 돌아와 저택과 원림을 지었는데 대개는 서양의 풍격을 모방한 것들이었다. 17, 8세기에는 중국에 왔던 서양의 상인과 선교사들에 의하여 중국의 문화가 서양의 궁정과 귀족 사이에 일시적으로 성행하는 중국풍의 열기가 일기도 했다. 이것을 양식적으로는 시노와즈리라고 부른다.



(사진3) 북경의 대각사 후원. 자연의 돌을 이용한 바둑과 가산이 혼연일체되어 있다.